



POD NO. 1 한국학술정보(주)가 리코를 선택한 이유는?

일관된 색상 구현하는 프로 C7100SX가 사업에 최적

지식정보화와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낯설던 1990년대부터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업을 기초로 디지털 인쇄사업을 펼쳐왔던 한국학술정보(주)(대표이사 채종준)는 디지털 인쇄 보급 초창기부터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출판 사업을 전개해 매년 500여종의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본사와 서울 충무로 북토리에 리코 프로 C7100SX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해 부가가치 높은 POD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 리코코리아

1999년부터 총 40여대의 디지털 인쇄기 도입

한국학술정보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40여대가 넘는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범위를 넓혀 POD 업계에서 선두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체계적인 장비도입으로 지난 2012년 10월에는 다품종 소량 출판에서 다품종 대량 출판에 이르는 폭넓은 경쟁력을 갖췄으며, '재고 유지비용 절감과 매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공략하고 있다.

POD는 디지털 인쇄를 도입해 주문한 수량만큼 인쇄할 수 있는 출판 방식이다. 일정한 원판으로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기존 오프셋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인쇄는 촉박한 납기일에 다품종 소량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재고 및 손지 처리가 적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POD가 대량 인쇄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국학술정보가 검증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리코 디지털 인쇄기 프로 C7100SX 장비 2대를 도입해 본사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북토리에서 가동하고 있다. 리코 프로 C7100SX 인쇄기는 표지제작, 카드와 명함 인쇄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구매 전, 다양한 장비를 테스트했지만, 리코 프로 C7100S 시리즈만큼 정교한 색상과 다양한 종류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대비 효율성을 갖춘 장비가 없었다는 것이 한국학술정보의 증언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

다양한 소재에 업서부터 배너까지 폭넓은 인쇄

리코 프로 C7100SX 인쇄기는 첫째, 색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30~50부의 소량 인쇄물을 작업한 후 필요한 수량을 다시 인쇄했을 때도 인쇄한 색상은 동일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학술정보 측은 "리코 장비는 처음에 인쇄한 색과 다시 인쇄한 색상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수많은 디지털 인쇄기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색상을 비교해 봐

도 리코 제품만큼 색상이 동일하게 나온 장비는 없었다. 거의 1:1로 색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로써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토너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색상의 일관성 면에서 최고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리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워크플로의 효율화와 탁월한 인쇄 품질을 보증한다. 그래픽아트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EFI Fiery Graphic Arts Package, Premium Edition Plus 2, 효율적인 터잡기와 편집 기능을 갖춘 EFI Fiery Impose Software Licensing, 컬러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망라한 통합 패키지인 EFI Color Profiler Suite, 탁월한 편집기능을 갖춘 EFI Fiery Compose Software Licensing 등 다양한 솔루션이 갖춰져 있다.

리코 프로 C7100SX는 다양한 종류의 용지와 소재에 출력이 가능하다. 139.7mm 엽서부터 700mm 크기의 긴 용지에 이르기까지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배너나 포스터도 인쇄할 수 있다. 검은색 용지에 흰색토너를 올려서 인쇄하거나 PET, 메탈릭 용지 위에도 자유로운 구현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플로터라든지, 별도의 장비를 통해 출력했던 A4사이즈의 하드커버는 물론이고 명함과 카드도 제작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할 수 있다.

장비 도입 신중한 만큼 작업자 관리도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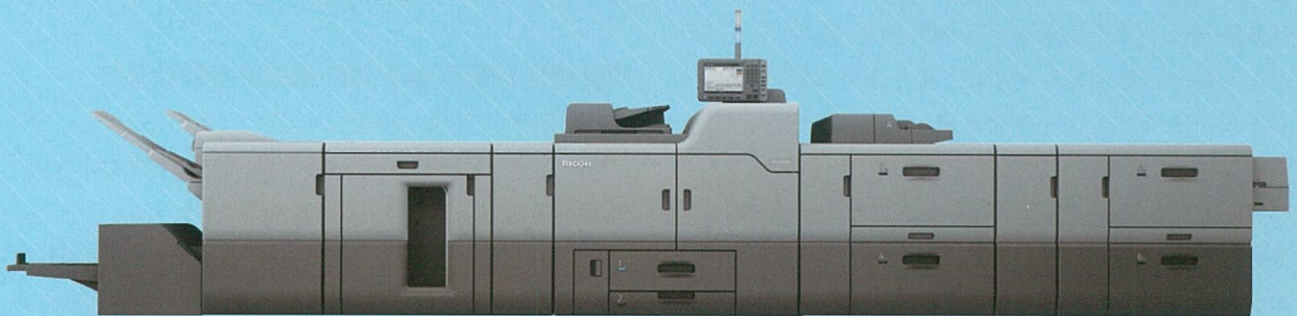
한국학술정보는 우수한 장비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를 실제 운영하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교육과 신기술 공유,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작업자와 관리부서, 장비 공급사인 리코코리아의 서비스 부서가 끈끈한 가족과 같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서에서도 작업자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고,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비공급사를 팬(Fan)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Partner)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

또한 한국학술정보는 장비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을 통해 검증이 됐는가? 도입 시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가?’ 등 많은 궁금증을 갖고 출발한다. 그리고 장비 도입을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 전시회를 참관해 실제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에 도입한 리코 프로 C7100SX도 국내에서 소개되기 전에 해외 전시회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친 후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술정보 측은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올인프린트차이나 2014’에서 리코 프로 C7100S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인쇄기를 확인한 바 있다. 전시회 현장에서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시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4월에 개최된 ‘프린트 차이나 2015’를 통해 다시 한 번 리코 프로 C7100S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코 프로 C7100SX를 구매한 이유는 우선 가격대비 효율성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장비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표지, 카드, 명함 인쇄다. 그리고 이 장비는 가격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아 고부가가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고, 높은 품질이 필요한 인쇄물에 적합한 장비다. 또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어 만족한다. 리코 프로 C7100S 시리즈는 출시 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디지털 인쇄기기로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술정보는 리코코리아와 진정한 파트너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국학술정보 측은 “새로운 장비를 출시할 때 우리나라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과 스펙을 조사해 반영해 주길 바란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판형을 지원하는 등 국내 출판물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제품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기존 장비 구매자가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돼 새로운 장비구매 시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리코 프로 C7100SX 디지털 인쇄기